

# 사람은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의 병존체이기에 육(=몸)도 곧 영이다

하늘과 땅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천지창조설은 마귀의 조작설입니다. 천지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의 빛이 마귀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로잡힌 하나님의 빛이 분열의 신(神)인 마귀에 의해 씨줄날줄로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만물의 생성배경입니다. 이로써 빛의 세계였던 에덴동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와의 신들의 1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격암유록 『도부신인』편에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고 마귀가 이겼다(天神負而地鬼勝)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6천년 만에 2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대장 마귀를 죽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 속에 '나(我)'라는 주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쫓개마귀만 모두 없애면 잃어버렸던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 자체가 하나님이요, 에덴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요, 영입니다. 곧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빛으로 환한 자만이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세주 말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었다

“마음만 바로 먹으면, 하나님 될 마음만 먹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없어집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없어지고 빛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환한 몸이기 때문에 영원무궁토록 사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었었습니다. 빛이었었는데 마귀가 빛이 되는 하나님을 사로잡고 말하자면 지구 땅덩어리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마귀 육에 가두어 놓고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세주가 와서 마귀의 육을 부수고 하나님을 석방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일까? 보통 일일까? 엄청난 일이지? ... 중략 ... 그런 세계가 이제 조금 있으면 펼쳐집니다. 이 사람이 먼저 빛으로 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빛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들 감로 이슬성신을 먹으면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겁니다. 천년만년이 흘러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세계는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대로 천년만년 흘러도 똑딱하는 순간에 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2003-04-21, 구세주 설교 말씀 중에서』

### 육체(肉體)라는 언어는 마귀의 소산물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부르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갈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때 마귀에게 포로가 된 하나님을 지칭하여 곧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마귀의 병존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요, 마귀도 영이므로, 사람 자체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사로잡은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의 병존체'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사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주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귀 영은 사람 스스로 '나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정관념을 나(我)라는 주체의식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육체(肉體)'라는 허구의 언어를 고안해내어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흠이라든지 돌, 불, 불, 공기, 나무와 쇠 등도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의 병존체'로 되어 있는 신(神)이지만 마귀의 계략에 빠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물(萬物)'이라고 통칭하면서 일종의 '물질(物質)'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물질을 영과 구분되는 어떤 존재로 인식하게끔 세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라는 언어 역시, 육체라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마귀에 의해서 고안된 허구의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마귀의 꾀계에서 나온 천지만물 창조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靈)인데, 영과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물질'이라든지 '육체'라는 단어를 고안한 마귀의 목적인, 물질의 소멸과 육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하나님이 흠을 빚어 아담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해와를 지었다고 성경 창세기편에 나오는 기록은 마귀의 대표적인 허구설로써, 곧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될 아담과 해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나 사람이 죽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는 마귀의 꾀계에서 나온 것이 천지만물 창조설입니다.

만약에 에덴동산에 아담이 존재했다면, 그곳에서 아담이 잠잘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동산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존재는 늘 행복과 쾌락 가운데 있고 또 그 곳에는 괴로움이 없으니 잠자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에덴동산이 되는 하늘나라에 아담과 해와가 있었다면, 아담과 해와의 신분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만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사람의 시조가 되는 남자 사람의 아담과 여자 사람의 해와를 하나님이 흠으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기록하게끔 성경 저자를 조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흠에서 왔으니가 흠으로 돌아가야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며, 심지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마귀의 조작설이 사람의 관념에 뿌리깊이 박혀 불변의 진리로 둔갑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뜻 결과만 보면 역사적으로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어왔다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마귀의 조작설을 간파하지 못하고 한번 태어나 한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의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체념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죽음의 원인을 숨긴 채 죽음의 결과만 가지고 인간의 사고(思考)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고의 범주를 지극히 한정된 범위에 머물게끔 어둠의 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죽음의 원인을 숨기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죽음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자신이라는 것이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 음양에 의한 쾌락은 생명을 소진한다

인간이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의 병존체

로 되어 있는데, 나(我)라는 주체의식이 작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점점 소모되는 것입니다. 마귀 영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운동력(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허구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타고 그 생명력을 소진시키는 과정에서만 그것도 겨우 일시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누리는 쾌락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이기도 한 진정한 쾌락일 수 없고 정욕에 의해 취해지는 음란한 쾌락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음란한 쾌락이란 음양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쾌락인데, 마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딪쳐 스파이크를 일으킬 때 에너지가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력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이기적인 쾌락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도,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갈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마귀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점령할 때, 두 분 하나님까지 사로잡았는데 그 두 분 하나님이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었었습니다. 마귀에게 포로가 된 두 분 하나님 중에 아담 하나님은 남자 사람이 되었고 해와 하나님은 여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그때부터 시공간의 개념이 생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담과 해와의 후손은 그 자신이 마귀와 하나님의 병존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대신에 육체와 영혼의 병존체라는 허상을 그 자신의 실존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와 하나님의 병존체이지만, 사람 속에 마귀 영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옥(靈獄)에 갇혀 있는 상태가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마음의 주인이 되는 나(我)라는 주

체의식이, 지배하는 영이 되는 마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은 마귀 육에 갇힌 양심으로 남아 있는 까닭에,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고자 해도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마귀 영)이 가로막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로 굳어져 갈수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물질로 파악하려는 관념이 강해지며 또한 소유에 대한 애착이 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물질의 썩는 현상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서 행해지는 쾌락인데, 마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딪쳐 스파이크를 일으킬 때 에너지가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력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이기적인 쾌락인 것입니다.

### 영육일체의 진실과 오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靈)이요, 신(神)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영육일체설에 대한 오해는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에덴동산이 무너진 후, 죄인(罪人)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 영(靈)을 육(肉)으로 보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와 물질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단지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이 혼재된 상태에 있는 모습을 가리켜 '육체'라는 마귀 말과 '물질'이라는 마귀 말이 조성되어 마귀의 의도대로 마치 이 세상에는 영(靈)과는 별개의 속성을 지닌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단단히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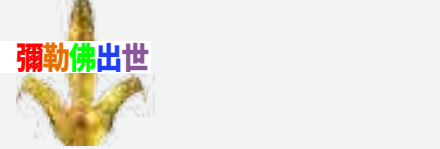
진정 사람 자체는 영(靈)이요, 신(神)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이요, 신임에는 분명하지만 순수한 하나님 영으로만 존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의 병존체로서 '마귀에게 점령당한 하나님'입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한 하나님이란 마귀 종의 하나님,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요,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입니다. 어둠의 신(神)이 되는 마귀는 운동력이 없는 무생명체(無生命體)이기에, 마귀가 생각하고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 속에 생명과 양심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운동력을 이용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욕심의 악한 마귀 마음과 양심의 선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두 종류의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마귀 마음이 사람의 주체의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마음의 주인이 마귀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 나(我)라는 주체의식에서 비롯되기에, 마귀의 영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작용할 때마다 사람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은 조금씩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서 마귀 영의 지배를 당하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가는 현상이 사람의 병들과 늙음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마귀 영이 욕심을 부릴 적마다 생로병사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러한 생로병사의 현상을 겪는 당사자는 그 죽어가는 원인이 마귀 영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지어낸 육체의 유한성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마귀의 주문에 따라 영생이 가능한 삶조차도 체념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권세를 쥔 마귀와 싸워볼 생각이 없는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한 눈에 빠져들어 결국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이 그 자신이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의 병존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을 석방시키는 방향으로 삶의 행동반경을 설정하고 마귀 마음인 나라는 주체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마귀의 철용성이 되는 육체라는 허상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 속에 마귀 세력이 약화되어 갈수록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의 병존체로 되어 있는 사람이 후천적으로 생긴 마귀의 허상을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순수하게 거듭날 때에, 지금까지 물질과 육체의 허구와 속박에서 해방되어 육(肉)이 영이되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영육일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택선 기자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25>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25>

#### 시고명조(是故名祖)

大般涅槃經卷第八(대반열반경 8권)

喻如小兒 是故名曹  
유여소아 시고명조  
不知師恩 喻如瓶羊 是故名祖  
불지사는 유여저양 시고명조  
非是聖義 喻如外道  
비사성의 유여외도

어린이와 같으므로 '조라고 한다. 스승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숫양(瓶羊)과 같으므로 '인류의 조상이다. 의미로는 성스럽지 않으니 마치 외도와 같느니라.

해설 :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조씨다. 그런데 기존의 불교의 스님들이 아니므로

석가모니는 미륵을 증거하는데 고마워 하지 않으니 빨간 수컷 양처럼 숫양같이 성스러운 뜻은 아니나 인류의 조상이다.

그러나 실제 한문 고려대장경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일본의 신수대장경인데 신수대장경은 고려대장경 영인본을 가지고 만든 일본 대장경이다.

이상한 것은 고려대장경에는 '喻如小兒, 是故名曹 不知師恩, 喻如瓶羊, 是故名祖, 非是聖義, 喻如外道'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일본의 신수대장경도 그럴줄 알았다. 왜냐하면 신수대장경은 한국의 고려대장경 영인본을 근거로 했으니가 그런데 일본의 신수대장경에는 '喻如小兒, 是故名曹 不知師恩, 喻如瓶羊, 是故名祖, 非是聖義, 喻如外道'로 바뀌었다.

그리고 일본 대장경을 만들 때 고려대장경에 오자나 탈자가 많아 자기들이 수정하여 만들어 세계최고의 대장경이라고 떠드는데 동대부설 역경원서 한글 대장경을 만들 때 일본의 신수대장경을 보고 한

글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喻如瓶羊'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다. 이 부분은 미륵부처님의 출생기를 보면 답이 나온다.

[이 사람은 1981년(신미년) 8월 12일(음력 6월 28일 새벽 4시경), 능부이신 부친 조경남(傳慶男)과 모친 오지덕(吳只德)사이에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윗 글에서 신미년 음력 6월 28일 출생하셨는데 신미년은 양띠라는 것이요 6월 역시 양의 달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의 양띠 해에 태어나시는 남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신미생 양띠의 남자라고 석가모니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불설미륵사시경(佛說彌勒來時經)

又見 天書 錄人間善惡 勞心報應 우견 천초 녹인간선악 노심보응

또 보니 하늘의 조씨가 사람들의 착함

과 나쁨을 기록하여 심판하리나...

해설 : 석가모니는 미륵부처님이 인간들 하나하나 착함과 나쁨을 기록하여 그 날에 심판하여 바릴 것은 버리고 오직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만 함께한다는 무서운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감로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죄가 어느 정도 이상은 제거되어 야 감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진기에 촬영되어 감로가 보이는 것은 사진기는 인간과 같은 의식이 없기에 촬영되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나와서 감로로써 죄를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고 목탁 두드린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하나님(미륵부처님)께서는 제단에 오지 않고는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를 제거할 수 없다고 하신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明鍾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陝川 海印寺 大藏經板) 또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伽倻面) 해인사 경내의 4동(棟)의 장경판고(藏經板庫)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판, 국보 제32호이다.

사진 출처: <https://ncms.nculture.org/woodcraft/story/3518>